

# ROTC, 창군 이래 첫 추가모집



▲ 지난 2월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입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모집에 나섰다. ROTC 지원율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초급 간부들이 부족해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곧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작년보다도 낮아져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병사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해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약속한 반면 초급간부 월급은 제자리걸음이어서 병사와 간부의 월급이 역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OTC는 미국 제도를 본떠 1961년 6월 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창설됐다. 해군은 1958년, 공군은 1971년, 해병대는 1974년 각각 ROTC를 창설했고, 육군 ROTC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현재는 118개 대학 학군단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ROTC를 운영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타우트잼버리 개막

무더위를 뚫고 전 세계 4만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대축제가 막을 올렸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잼버리 개영식을 열고 12일까지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새만금 세계 잼버리 영지에서 열린 개영식에는 150여 개국 4만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개영식에서는 세계적 탐험가이자 세계스카우트연맹 수석홍보대사인 베어 그립스의 깜짝 퍼포먼스와 포레스텔라의 마니 콘서트, K-타이거즈의 태권도 시범, 드론쇼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 지난 2일 열린 개영식에 참가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스카우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스카우트조직위 홈페이지 캡처

을 확대했지만 가장 많은 4,500여명을 파견한 영국 대표단이 행사장에서 철수를 선언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잼버리는 개막 초기부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속출과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탈의실, 부실한 식사, 조직위의 안일한 운영 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한편 이번 잼버리는 낮 최고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더위와 해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회 이틀 동안 600여 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부상 등 다른 질환까지 포함하면 환자가 2,000명가량에 달했다.

편의시설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잼버리 조직위는 영내 외부 활동을 축소하고 즐기고 해양활동 등 영외 프로그램

# 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수요 급증

고물가로 가성비를 갖춘 편의점 도시락과 HMR(가정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다.

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이마트24의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점심 시간인 11시부터 13시까지 매출 비중이 22.8%로 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같은 시간대(11시~13시) 매출 비중인 20.1%보다 2.7%p 높아졌다.

특히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원가 매출이 39%로 가장 많이 늘었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가볍게 한끼를 해결하려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오피스 상권(32%)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주택가(16%)의



▲ 고객들이 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OU

편의점 도시락 매출도 동반 성장했다.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도 가정간편식 상품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함께 긴 장마와 무더위로 집에서 간편식으로 복달임 음식을 즐기게 하는 소비자 수요가 크게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의 가격정보조사

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6,423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4,885원)에 비해 10.3% 올랐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소비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일반 상품과 맛과 품질은 유사하지만 가격이 합리적인 PB 상품(유통업체 기획 상품)을 많이 찾고 있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